

經營學과 패러다임

金 元 銖

《目 次》

I. 序 言	關係
II. 패러다임—그 意義와 機能	IV. 經營學상의 패러다임
III. 패러다임, 背後假定 및 類似概念의	V. 結 言

I. 序 言

經營學을 포함하는 모든 학문내지 科學⁽¹⁾의 研究目標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研究對象으로 삼고 있는 어떤 事象에 대하여 說明·豫測·理解를 하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制御(내지 統制)하려는 데 있다. 그것은 곧 그 事象에 대한 未知의 상태를 벗어나 知覺的, 意識的으로 알고자 하기 때문이며 베이컨(Bacon, F)의 “아는 것은 힘”이란 말처럼 그것은 단순한 主知主義의인 認知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未來의 目標과 관련하여 그 事象을 目的合理的으로 制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어떤 事象에 대한 研究란 명확히 定立된 어떤 對象⁽²⁾에 대한 認識에서 비롯된다.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概念(複合 또는 構成概念 포함)을 定立하고 이들 諸概念間的의 關係를 假說化하고 이를 檢證하여 原理(내지 原則)化하고 나아가 이러한 原理의 보다 고도로 一般化된 受諾에 의해 法則이 형성되며 이러한 法則의 體系化에 의해 理論이 형성되는 一連의 過程이 진행된다.

그런데 靜態的 科學觀을 따를 때 理論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科學 내지 學問은 상당한 정도로 成熟化되어 있어야만 하므로 이때의 학문은 바로 法則을 중심으로 하는 知識의 體系로 이해된다. 그러나 動態的 科學觀을 따를 때에는 理論은 法則 보다 低次的인 假說의 體系 내지 原理(原則)의 體系로 이해되어 科學 내지 學問은 絕對的인 眞理가 아니라 暫定的인 성격を 가지는 科學(provisional science)으로 이해되어 그것은 다만 미래의 研究를 유발할 수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1) 分科學, 個別科學, 또는 專門科學(discipline)의 의미를 포함.

(2) 新칸트派的인 認識論理에 따른 認識對象이 아닌 存在實體로서의 經驗對象임.

있는 假說의 提示만 한다고 하더라도 科學的인 연구의 의의는 있다고 보게 된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科學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일까? 우선 이하에서는 動態觀을 따르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經營學의 연구대상(그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規定되건간에)에 대한 각 학자의 認識의 결과 획득된 知識을 體系化하여 형성한 理論 내지 科學⁽³⁾ (그것이 說明理論이건, 豫測理論이건 혹은 實踐 내지 制御理論이건)은 여러가지로 형성되어 소위 저마다 다른 學說⁽⁴⁾을 만들어 多樣化를 초래하고 學界에는 여러 學派가 對立하는 樣相을 보이게 된다.

예컨대 미국의 經營學의 主流인 經營管理學상으로는 쿤츠(Koontz, H)에 의해 11개의 學派가 지적되고 있으며(cf.[24] pp. 53-63) 독일의 經營經濟學의 경우에는 일찌기 쉐프루그(Schönplflug, F)에 의해 크게는 두 가지, 더욱 細分하여서는 規範論學派, 技術論學派 및 理論學派의 3개學派로 분류되었었고 오늘날에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分類가 試圖되고 있다(cf.[5] pp. 242-244).

이와 같이 동일한 存在實體인 대상에 대한 認識의 결과 형성된 知識의 體系로서의 理論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까닭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만 될 것인가? 사이몬(Simon, H.A.)의 주장과 같이 學問내지 理論의 多樣化와 分化를 學問發展의 象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그것을 보다 긴 歷史的, 時間的 次元에서 볼 때에는 一時的인 自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知的分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완전한 知識體系의 형성을 위한 人類전체로서의 知的作業 過程상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쿤(Kuhn, T.S.)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소위 패러다임(paradigm)⁽⁵⁾으로 불리는 支配的인 理論(dominant theory)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여러 非支配的인 理論들의 競合段階로 볼 수 있는 것이다(cf.[25] p. 18, [26] p. 27). 따라서 한 개인이나 또는 어떤 집단이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을 魅惑시킬 수 있는 綜合(synthesis)을 내놓으면 舊來의 학과는 점차 사라지게 된다. 그 이유는 그 학과의 소속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轉向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統一科學論爭(unity of science issues)과 관련하여 科學統合化로의 길이 모색되고 있음은 바로 知的分業樂觀論이 가져다 준 學問的分斷化와 專門閉塞化의 폐단을 인식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찌기, 1930년대의 독일경영경제학의 現狀을 평가하여, 슈마렌바흐(Schmalenbach, E)는

(3) 이론과 과학 양자의 관계는 일단 不問에 부친다.

(4) 學說은 理論의 下位概念으로 보기로 한다. (cf. [1] p. 36).

(5) 構想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27] p. 1).

方向喪失症에 걸렸다고 自嘆하였으며 쾨발트(Sombart, W)는 같은 경영학을 연구하더라도 그것은 지구와 달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었다(cf. [2] p. 20). 또한 미국의 경영관리학의 경우에도 어웁(Urwick, L.F)과 쿤즈는 經營管理와 관련된 理論의 多樣化傾向을 密林現象에 비유하여 인식하였었다(cf. [2] pp. 20-21).

그렇다면 이러한 學派의 分岐化를 가져오게 하는 理論내지 學說의 多樣化는 무엇에 緣由하는 것일까? 그것은 學問의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은 그것을 인식하는 方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가? 어쩌든 이와 같은 學派의 지나친 分岐化로 인해 學問 그 자체가 正體危機(identity crisis)를 맞고 있는 經營學의 현실에 비추어 이의 統合化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多樣化라는 현상을 생기게 한 根源 내지 問題의 뿌리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本稿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일한 대상이 山이라면 어떠한 길을 따라 그 산을 오르더라도 동일한 山頂(공통의 인식)에 이를 수 있어야만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달과 지구만큼의 차이가 있는 認識結果를 낳게 하고 있는 學說내지 理論의 多樣化, 나아가서는 學派의 多岐化의 根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試圖하는 것이다.

II. 패러다임—그 意義와 機能

經營學의 分化에 따른 學派를 분류하는데 있어 일찌기 쉐프르그는 그 기준내지 分類의 기초를 그들 학자가 따른 方法論의 差異에 두었었다. 여기서 말하는 方法論의 差異란 경영 경제학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이에 영향을 미친 認識論理의 바탕이 된 哲學의 인 기초의 차이 내지 對立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학문 내지 知識의 體系化의 기초는 哲學 내지 世界觀상의 定理로 보았었기 때문이다(cf. [28] pp. 64-65)⁽⁶⁾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科學으로서의 經營學의 方法論의 差異를 가져오게 하는 근원은 바로 경영학을 포함하는 諸個別科學의 성립·진개의 근거를 규정지워주는 科學理論의 方法論, 즉 이의 體系化의 기초가 되는 哲學 내지 世界觀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영학을 포함한 諸個別科學을 대상으로 하는 科學理論은 이들 諸個別科學의 目標, 言明(言明體系) 및 基礎의 處理方法에 관한 言明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이들 諸個別科學이 依據하는 科學的 言明과 非科學的 言明사이의 境界設定企圖의 기초를 마련하여 줄 뿐

(6) 이의 初版의 書題는 「個別經濟學에 있어서의 方法問題—하나의 學說批判研究」(cf. [29])이었다.

만 아니라 동시에 指導原理라는 형식으로 結晶化되는 方向設定의 틀 내지 테두리(orientierungsrahmen)를 제공하는 것이다([27] p. 1).

따라서 科學理論은 여러가지(그리고 部分的으로는 상호관련된) 諸分科學(學科)에 대한 上位概念으로 理解되는 것인데 文獻상으로는 科學哲學, 科學의 科學 또는 科學에 대한 科學으로도 불리워지며 이의 範疇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回答을 얻으려는 모든 연구 노력이 포함된다고 한다(ibid., p. 151).

- ① 科學의 思考의 本質과 意義는 무엇인가? (科學哲學)
- ② 科學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展開되어 왔는가? (科學史)
- ③ 社會的 機能으로서의 科學은 어떻게 制度化되고 있는가? (科學社會學)
- ④ 創造的인 科學의 業績 내지 成果는 어떻게 달성되는가? (科學心理學)
- ⑤ 科學的 言明의 正當性의 根據는 어떻게 확립될 수 있는가? (科學論理學)
- ⑥ 科學은 어떠한 利益 내지 社會的 目的에 이바지하는가? (科學政治學)

이러한 科學理論이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한다(cf. ibid., pp. 1-2).

- ① 批判的 機能~科學的 研究 그 자체를 비판하여 명확화하고 이의 실천상 나타날 많은 어려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준다.
- ② 發見的 機能~科學的 研究 實踐상 代替案이 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형성된 패러다임(=研究構想)을 전개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이러한 기능에 따라 科學理論은 새로운 科學的 構想 즉 패러다임과 科學研究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諸指針과의 사이의 批判·創造的 緊張關係를 생기게 하는 것이 基本的인 課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批判·創造的 緊張關係는 문제해결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代替案(즉 代替的인 패러다임⁽⁷⁾)으로의 전진이라는 의미에서 科學的 進步의 중요한 자극으로 인정되는 것이다(ibid., p. 2).

그렇다면 經營學을 포함하는 個別科學에 대해 研究構想으로서의 패러다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科學理論에는 어떠한 方法論的 基礎가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科學理論에는 研究構想으로서의 패러다임은 없는 것일까?

라페(Raffée, H) 등에 의하면 오늘날 독일의 經營經濟學상 전개되고 있는 方法論爭⁽⁸⁾을 살펴 볼 때 그것은 두가지의 競合的인 科學理論의 基本構想 즉 패러다임에 지배되고 있음

(7) 筆者插入分임.

(8) 第4次方法論爭중의 둘째 見解, 즉 1960년대에 전개된 現存理論의 科學性的 定礎와 관련되는 논쟁이다(cf. [5] p. 237)

〈表 1〉 構成主義와 批判的 合理主義의 異同

構 成 主 義	批 判 的 合 理 主 義
① 限定된 可謬主義	철저한 可謬主義
② 根據設定에 의한 合理的方法	根據設定에 집착하지 않는 合理的方法
③ 實用主義	批判的 實在論
④ 事實言明과 規範에 관한 方法一元論	事實言明과 規範에 관한 批判的 二元論
⑤ 文化科學과 自然科學에 관한 方法二元論	文化科學과 自然科學에 관한 方法一元論

(資料 : [27] p. 3)

을 확인할 수 있다([27] p. 3)고 하는데 이는 곧 科學 내지 理論의 根據設定機能을 수행하는 科學理論상으로도 패러다임⁽⁹⁾이 존재함을 示唆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科學理論상의 基本패러다임 내지 構想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가 있다고 하며 이 두가지 科學理論상의 패러다임은 〈表 1〉과 같은 주요한 특징(Merkmahl)을 가진다고 한다.

1. 批判的 合理主義
2. 構成主義

그런데 이러한 科學프로그램 즉 科學理論상의 研究構想으로서의 패러다임은 바로 認識論상의 패러다임인데 認識論은 오늘날의 經濟·社會 諸分科學의 科學觀을 결정적으로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cf. [27] p. 11). 그런데 앞서 본 바 두가지의 패러다임중 批判的 合理主義는 古典的 認識論의 構想과의 對決에서 생겨났다고 하는데(*ibid.*, p. 11) 이는 認識論상의 패러다임의 代替인 한 형태임을 示唆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古典的 認識論(古典的 合理主義 : 主知主義)과 古典的 經驗主義(感覺主義)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패러다임으로서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科學理論상으로 비판되고 있다(cf. *ibid.*, pp. 16-23).

1. 科學理論의 觀點에서의 批判
 - 1) 絶對的 根據化思考에서 歸結되는 뮌하우젠의 트리렘마(Münchhausen-Trilemma)
 - 2) 絶對的 根據化思考에서 생각 될 수 있는 歸結
 - ① 認識論의 으로 가장 훌륭한 言明의 도그마(dogma)化
 - ② 理論의 一元論
 - ③ 誤謬의 이데올로기化
- 3) 古典的 認識論의 固有의 難點
 - ① 合理主義상의 理性의 과대평가

(9) 이를 科學프로그램(cf. [27] p. 11)이라고도 한다.

② 經驗主義상의 經驗의 과대평가

따라서 오늘날 批判的 合理主義에 입각하는 科學觀은 古典的 認識論의 部分的 綜合(synthese)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實在을 설명하기 위한 假說이나 理論 내지 法則등의 精神的 探索 즉 理論的 思索의 강조와 같은 合理主義의 기본요소와 아울러 관찰이나 실험에 의한 批判과 修正機能의 시인 즉 經驗에 입각하여 理論的 說明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 吟味한다는 면에서의 經驗主義의인 기본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古典論者와 같이 認識論的인 絕對性을 가지려는 企圖는 철저히 拒否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古典的 認識論에 따라 획득한 지식의 認識論的 確實性이란 어느 것이든 任意로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며 다만 어떻게든 dogma的 安定性을 지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歸結을 피하기 위해 批判的 合理主義와 같은 現代의 科學프로그램 즉 패러다임은 확실성이나 궁극적인 認識論的 確信에 이르려는 것을 意識적으로 단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론이 정말 적절한가 아니면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現實世界의 반대가 判決을 내리게 된다. 眞理를 파악한다는 것은 認識論的 樂觀主義와 같이 眞理의 啓示理論에 의해서가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方法에 따라 기껏해서 實在에 비추어 보아 失敗한 理論을 잘못된 것으로 보아 배제하고 보다 좋은 것에 의해 代替된다는 간접적이고 近似的인 方法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批判的 合理主義는 비록 迂回的인 方法에 의해서이지만 論理的으로 끝남이 없는 批判的인 眞理探究 즉 獨斷(dogma)主義와 獨斷(dogma)에서 벗어난 眞理探究가 가능한 合理性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27] p. 24).

이에 대립되는 現代 認識論상의 다른 패러다임이 바로 構成主義인데 양자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cf. ibid., pp. 3-7).

첫째, 양자 모두 理性은 틀릴 수 있다는 理性의 원칙적인 可謬性(Ferbarkeit)을 시인하는 可謬主義에 입각하나 그 方法에 차이가 있다.

둘째, 양자 모두 合理主義的 方法을 따르되 전자는 合理性의 가능성을 根據設定에 구애받지 않는 批判主義에 입각하나 후자는 實用主義的인 眞理모델에 입각하여 眞理란 資格이 부여되고 權限이 주어진 合意(consensus)에 의해 定立되고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統一的인 眞理모델 때문에 事實言明과 規範에 관해서는 方法一元論을 취하며 이것이 오늘날 이 학과가 規範的 科學의 方法論的 可能性을 가지게 된 信念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는 根據化思考에 대립되는 批判主義에 입각하여 眞理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고 誤謬의 체계적인 탐구와 배제에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후자와는

달리 事實言明과 規範은 별도의 다른 원칙에 따라 판단되고 비판되어야 한다는 批判的 二元論을 전개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적어도 近似的으로 인식가능한 客觀的 實在가 있고 또한 이의 적절한 言語的 表現이 科學的 認識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假定을 바탕으로 하는 批判的 實在論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規範은 眞理가 아닌 메타 倫理的 基準에 의해 판단, 비판되어야 한다는 批判的 二元論이 주장된다.

세째, 文化科學과 自然科學에 관해서 전자는 方法論的 一元論에 입각하나 후자는 반대로 方法論的 二元論에 입각한다. 즉 전자는 兩科學의 기초영역에는 동일한 說明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演繹的·法則論的 說明모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자는 演繹的·法則論的 說明 모델과 經驗理論指向性이 자연과학에서는 有意義하나 文化科學 따라서 經濟諸科學은 「理解의 方法」이라는 傳統에 입각한 固有의 說明모델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를 따를 때 個別科學의 多岐化를 가져오게 한 바탕은 바로 개별과학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주는 發見的 機能을 수행하는 科學理論 그 자체의 패러다임의 競合性 내지 多樣性에 입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個別科學이 依據하는 認識論的인 基盤 즉 哲學的 내지 世界觀的 差異가 이러한 經營學상의 理論의 차이와 學派의 多岐化를 가져오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쉐프프그는 여러 경영학자의 方法論상의 차이를 價值判斷의 여부에 두고 그들이 가진 科學觀이 規範科學인가 存在科學인가 혹은 價值設定的 科學인가 價值自由(沒價值的) 科學인가, 또한 本質의 인식인가 事實의 인식인가에 따라 크게 規範論學派와 經驗·實在論學派로 나눈 다음 다시 후자를 技術論學派와 理論學派로 나누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는 결국 그들 각 연구자가 가진 研究構想 내지 패러다임의 차이에 따라 學派의 分化가 이루어졌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그들이 依據하는 認識論상의 패러다임의 차이에 입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III. 패러다임, 背後假定 및 類似概念의 關係

그렇다면 學派의 分化를 가져오게 하는 패러다임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背後假定 및 理論前提 등과 같은 類似概念과는 어떠한 關係를 가지는 것일까?

쿤은 패러다임을 무려 21가지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이 있다고 한다(cf. [26] pp. 61-65). 어떤 경우에는 명확히 理論體系, 어떤 경우에는 막연하게 價值觀, 世界觀 또는 認識論的 觀點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12] pp. 8-9). 어떻든 그는 패러다임을 支配

的理論의 의미로 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26] p. 27) 이는 바로 어떤 學問分野에 있어 풍부한 개념이나 問題設定 및 이의 해결절차를 제공하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그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認知된(또는 약간 적게 認知된) 중심적인 基本 모델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質的 基準을 충족하여야만 한다([27] p. 158).

- ① 問題解決能力(發見的 機能)
- ② 普遍性(많은 對象集合과의 관련성)
- ③ 正確性(一義的 結果)
- ④ 綜合能力(교육적인 體系化機能)

그러므로 어떤 學問分野의 科學的 進歩는 이러한 中心的 基本 모델의 존재에 상당한 정도로 의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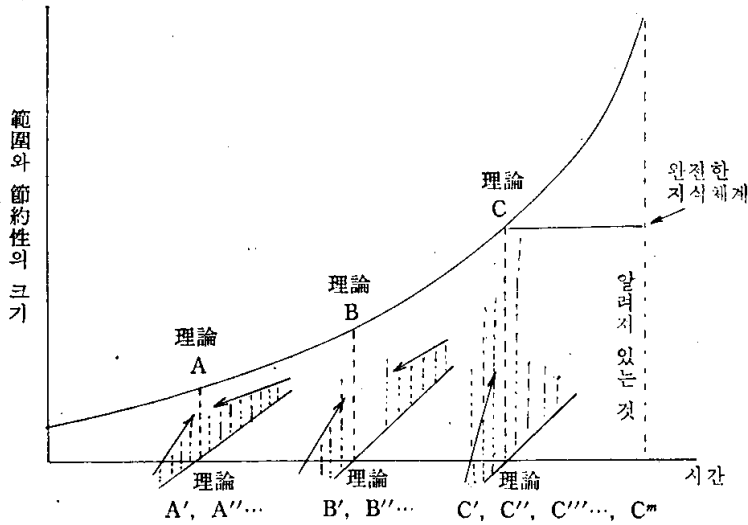
쿤은 社會科學의 특성은 자연과학에 비해 그다지 패러다임의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하고 이것이 연구나 학문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물리학의 경우 뉴우튼의 基本 모델과 후일의 아인슈타인의 基本 모델이 현저한 패러다임機能을 수행하고 있으므로(물리학을 배우는)⁽¹⁰⁾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전적으로 패러다임的 教科書에 의존하여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學生(그리고 研究者)은 부단히 여러 著述家들의 저마다 다른 術語와 問題設定 및 解決企圖를 상대로 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어떤 하나의 接近方法(approach) 또는 構想이 重要하고 拘束力이 있는 理論的 研究基礎로서, 즉 패러다임으로서 보편적 내지 광범위한 승인을 얻기는 아주 어렵다([27] p. 158)고 지적되고 있다.

어떻든 이와 같은 패러다임 즉 支配的 理論이 새로이 형성되면 이는 기존의 패러다임 즉 이론보다 그 대상을 더 잘 설명, 예측, 이해, 제어할 수 있게끔 보다 새롭고 더 엄밀하게 문제를 定立하여 고찰할 수 있는 理論的 틀 내지 테두리나 모델을 제공하여 주므로 科學的 進歩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음 世代의 연구자들을 魅惑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包括할 수 있는 보다 완벽한 綜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며 헤이그(Hage, J.)가 제시한 <圖 1>의 理論과 知識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보다 완전한 知識에 近接한 支配的인 理論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패러다임(圖 1의 理論 A, B 및 C 등)은 각각 特定の 시점에 있어서 기존의 諸理論(前 패러다임 學派의 이론) 보다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 ① 포괄하는 대상의 범위가 보다 더 넓은 설명을 하여 준다.

(10) 筆者의 挿入分項

〈圖 1〉科學的 進歩와 패러다임의 關係



(資料 : [20] p.219에 의함)

- ② 보다 더 적은 假定에 의해 설명을 할 수 있는 節約性이 높다.
- ③ 미래와 관련하여 豫測의 精度가 더 높다.
- ④ 說明의 精確성이 보다 더 높은 설명, 예측, 이해 및 제어를 가능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理論은 다른 이론보다 포괄하는 對象의 영역이 더욱 넓어 좁은 범위만 다루는 部分理論보다 包括性이 높은 一般理論 내지 綜合理論으로 더욱 近接하여 說明力이 더욱 높아지며 동시에 미래와 관련하여 豫測力도 크며 반면에 正確性이 높아 實證性도 높기 때문에 다른 학파의 學者를 誘導·轉向케 하여 소위 支配的 理論化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면 이는 舊來의 前패러다임群에 속하게 되어 다시 理論B, 나아가 理論C에 收斂되어 점차 理論 즉 科學은 완전한 知識體系 즉 知識의 極限으로의 무한한 近接을 하여가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패러다임의 本質은 무엇인가? 쿤은 이를 대상의 선정, 평가 및 비판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相互結合된 理論的 및 方法的 信念의 暗示的인 實體로 보아 이것 없이는 科學의 歷史를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었다(cf. [25] pp.16-17).

그런데 信念이란 어떤 개인이 가진 眞理로서 수락되고 또한 강력한 事實이나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先有傾向(predisposition) ([30] p.161)으로서 態도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태도란 어떤 개인의 總體的인 價値體系(total value system)를 형성하며 이는 行動

이나 판단시의 기준이 되며 이것이 理念(philosophy)으로까지 엄밀화되면 思想이 된다.

따라서 패러다임이란 보다 엄밀히 어떤 學者 개인을 전제로 할 때에는 그가 대상의 영역을 결정하고 이를 다루는 理論의 내지 方法的 信念으로서의 學問思想 내지 理念이며 理論이란 이러한 信念에 입각하여 理論의 틀이 주어지고 대상에 관한 인식이 이루어져 言語를 매개로 하여 形式論理性을 바탕으로 외부에 表出된 형태인 것이다(cf. [2] p. 26).

이와 같이 볼 때 패러다임이란 개인의 信念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으며 이것에 의해 支配的 理論으로서의 패러다임으로 성립된 理論 즉 信念의 外部表出形態의 수준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多次元性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社會學者인 골드너(Gouldner, A.W.)는 理論은 明示의으로 定式化된 假定(=公準)과 暗示의인 假定 즉 背後假定(background assumption)으로 구성되는데 후자는 인간과 사회에 관한 準理論의인 신념의 집합(a subtheoretical set of beliefs)으로서 이는 이론의 明示의 定式化와 그 방법론에 계속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배후가정의 범위는 아주 넓고 多様하여 저마다 다른 범위의 영역을 지배한다. 그것은 마치 逆圓錐型으로 배열되는데 가장 긴 圓周를 가지는 無限定의 배후가정은 예컨대 世界假說이나 形而上學과 같이 아주 광범한 것으로부터 適用範圍가 아주 한정된 배후가정인 領域假定(domain assumption)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패러다임의 多次元性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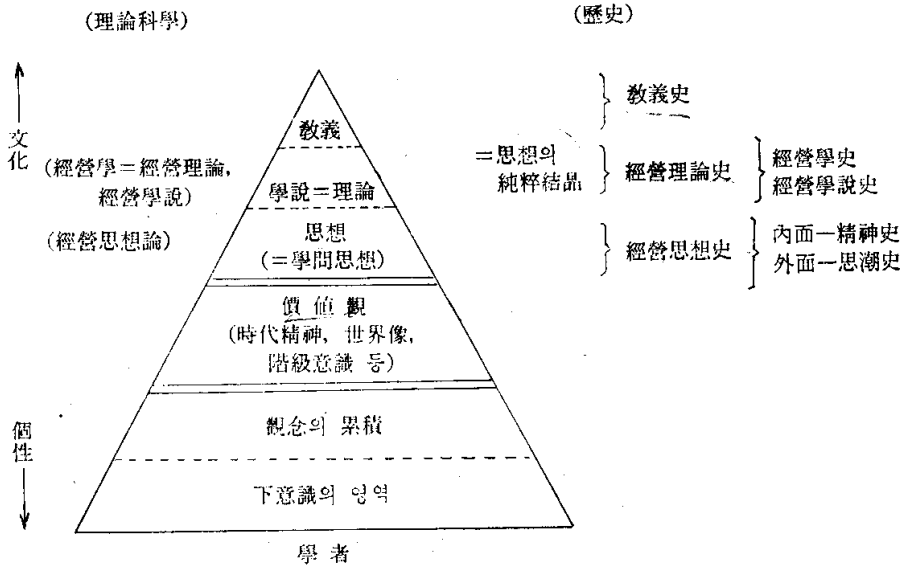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배후가정이란 研究者의 社會化의 초기과정에서 발전하여 그의 性格構造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情緒의인 認知道具인데 이는 그 연구자의 연구에 下部 내지 基礎構造(infrastructure)로서 강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배후가정을 識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까지 極言하고 있다(cf. [18] [10] pp. 264-265).

이와 같이 쿤의 패러다임概念이나 골드너의 領域假定概念은 모두 信念의 暗默의인 實體로 보여지고 있으므로 양자는 모두 學問이라는 知識體系에 영향을 미치는 價値 내지 價値觀의 集約形態인 思想을 示唆하는 것이며 이와 理論과의 관계는 <圖 2>에서 보듯이 理論은 思想의 純粹結晶으로서의 意識이 外部世界에 表出된 양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패러다임과 領域假定은 모두 理論 그 자체가 아니라 理論構築을 위한 기본적인 前提(=假定)가 되는 연구대상의 特定領域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 信念, 價値 또는 간략하게 표현하면, 대상을 보는 方法 즉 觀點⁽¹¹⁾ 또는 接近方法(approach)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흔히 말하는 바 理論前提(theory premise) 내지 研究指向性(research orientation)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11) 方法 및 觀點의 異同에 대해서는 [5] p. 297 및 pp. 302-304 참조

〈圖 2〉 思想과 理論의 관계



資料：〔11〕 p. 3에 의함

이와 같은 의미에서 本稿에서는 패러다임, 背後假定(領域假定), 理論前提, 研究構想, 研究프로그램, 研究指向性 및 接近方法등을 모두 동일하게 理論이나 知識體系의 形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학자나 학파의 價值觀을 형성하는 태도의 바탕이 되는 信念의 暗默的인 實體로 보고 經營學상으로 어떠한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交替되어 왔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IV. 經營學상의 패러다임

앞에서 보았듯이 패러다임概念을 처음으로 제시한 쿤은 社會科學의 경우 이의 形成을 의문시하였었다(〔25〕 p. 15) 사실상 社會과학상으로 어떤 接近方法 또는 構想이 알차고 충실하여서 拘束力을 가진 理論(學說)的 研究基礎, 즉 패러다임으로서 보편적 내지 광범위하게 승인을 얻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지적되고 있는데(cf. 〔27〕 p. 158) 그렇다면 經營學상으로 이와 같은 패러다임은 과연 있을 수 없는 것일까? 울리히(Ulrich, P.)와 힐(Hill, W.)은 구텐베르크(Gutenberg, E.)의 「要素理論的」接近方法이 오래동안 패러다임일 수 있는 成果를 산출한 유일한 접근방법이었으나 60년대 말에 이러한 구텐베르크의 古典的 패러다임을 극복하여 이의 現代化를 企圖하는 새로운 두가지의 접근방법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시스템의 접근방법과 意思決定論的 접근방법이라 하고 있다(cf. 〔27〕 p. 159). 이하 이와 관

련되는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구텐베르크 패러다임

이에레 (Jehle, E.)는 독일의 경영경제학상으로 “구텐베르크의 방대한 生産理論과 費用理論은 고도의 패러다임”([22] p. 76 [6] p. 1)이라고 평가하였다. 구텐베르크는 메레로비츠를 중심으로 하는 自然法則의인 費用法則과 自由經濟의 崩壞論을 주장하는 傳統的 經營經濟學派인 技術論學派와 方法論爭 및 費用論爭을 거듭하여 이를 論破함으로써 ([6] p. 2) 理論學派의 승리를 거두어 소위 구텐베르크學派를 성립케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경영경제학상으로 구텐베르크의 “要素理論的”接近方法이 장기간에 걸쳐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成果를 산출한 唯一의 접근방법이었다(cf. [27] pp. 158-159)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1951년의 그의 저서[19]에서 國民經濟學的 收益法則 대신에 어떤 特定의 要素投入量을 일정하게 한다는 假定을 포기하는 生産費用理論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으로 보다 타당한 「工業的要素結合의 法則」을 전개하였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의 要素投入量과 要素產出量사이의 生産性關係의 문제는 經營經濟學 固有의 主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방법을 이에레는 경영경제학에 있어서의 최초의 그리고 古典的인 패러다임이라고 하였던 것이다([27] p. 159)

이에레는 구텐베르크의 研究構想의 기초가 되어있는 (公準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2] p. 92 [27] p. 159).

- ① 경영학은 價值自由(沒價値)⁽¹²⁾의인 研究企劃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 ② 경영경제학의 純粹理論이 전개되어야만 한다. 實踐關聯의 研究도 원칙적으로는 틀림없이 所望스러운 것이지만 언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理論化에의 노력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¹³⁾
- ③ 경영경제학적 연구는 주로 經驗的·實在的 認識프로그램으로 構築되어야만 한다.
- ④ 경영경제학은 法則科學(즉 法則定立的 科學)⁽¹⁴⁾으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 ⑤ 경영경제학적 연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먼저 假說演繹의 方法이 채택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自然科學的 基準에 맞게끔 調整된 구텐베르크의 研究프로그램은 경영경제학을 고유의 認識對象(즉 代替的 要素結合의 生産性關係)을 가진 독립된 學科(分科學)⁽¹⁵⁾로 構想

(12) 筆者插入分임
 (13) 實踐과 理論의 對立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4) 이에레의 注釋임
 (15) 筆者插入分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數學的 傾向을 가진 生産 및 費用理論의 研究를 크게 부각시켰는데 거기서 특히 중요하였던 것은 구텐베르그의 構想의 洗鍊성과 발전성이었다. 이러한 研究 方向은 오늘날 獨語圈에서 指導的인 것으로 指目되는 두가지 專門學術誌 즉 「經營經濟雜誌」(ZfB, Zeitschrift für Betriebswirtschaft) 및 「經營經濟學研究雜誌」(ZfbF, Zeitschrift für betriebswirtschaftliche Forschung)를 오늘날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27] pp. 159-160).

그의 패러다임은 비교적 한정된 問題設定과 理論的, 抽象的 性向을 가져서 다루기 어려운 質的側面(人間行動, 非貨幣的 企業目標 및 政治的 側面)은 배제하고 있으므로 定量的 모델 分析을 하기 쉬운 문제(생산, 비용, 투자, 재무, 재고관리 및 자금조달등에 관한 諸理論)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풍요한 성과를 거두었다(cf. [27] p. 160).

이처럼 그는 경영경제학체계에 微視經濟學的手法을 도입하여 경영경제학상 數理學派를 확립하였던 것이다([17] p. 568 譯者後文). 따라서 그의 연구구상은 微視經濟學이 가진 假定을 그대로 그의 理論前提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구텐베르그의 연구구상은 獨語圈내의 경영경제학상의 최초의 패러다임으로서 평가를 받았으나 이 接近方法은 알버트(Albert, H.)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델·프라토니즘(Mode platonismus)화의 위험 즉 現實遊離的인 諸前提(唯一의 目標基準으로서의 利潤, 合理的인 意思決定行動, 利潤增大와 綜合經濟的 福祉極大化와의 調和)와 經驗的 無內容化라는 모델의 토트로지(Tautologie)화의 위험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는데([27] p. 160) 그 까닭은 그의 연구구상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經濟學的 方法論的 認識論的 基盤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實證·經驗主義的인 경향을 가지는 分析論理는 數學이나 論理學등과 같은 形式論理的 嚴密性을 강조하고 따라서 形而上學的인 價値判斷은 배제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價値自由性을 주장하는 웨버(Weber, M.) 流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價値란 形而上學的인 것이거나 개인의 嗜好에 따른 情緒的인 것이므로 哲學이 다룬 命題는 아니라고 보아 배제하게 된다. 원래 哲學이란 올바른 價値觀을 追求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分析哲學이 지배적이 됨으로써 價値에 대한 關心은 포기하게 되어 哲學은 事物의 原理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事實로서 주어진 命題를 經驗的으로 분석하고 形式論理的 整合性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矮少化되었다. 價値判斷을 배제하면 行爲에 대한 책임도 없고 다만 주어진 命題를 科學的으로 分析만 하면 된다. 그 결과 이러한 연구경향을 따르는 經濟學的 方法論도 20세기에 이르러 그 체계내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이는 경제사회의 原則的이고 動態的인 理論的 追求는 止揚하고 統計的 數値的 整合性속이 埋沒되

어버렸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cf. [7] pp. 93-94). 그러므로 구텐베르크의 연구구상도 바로 이러한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둘째, 그는 微視經濟學的 假定과 마찬가지로 古典的 資本主義를 전제로 한 經濟體制觀에 입각하여 企業을 個人資本家の 延長形態로 봄으로써, 다시 말하면 經營經濟學상의 전통적인 企業概念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상 오늘날의 西獨에서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勞資同權의인 思想에 입각하는 共同決定企業에 대한 고찰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cf. [14] p. 4).

세째, 그의 이론은 要素投入과 產出의 生産性關係를 문제의식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① 그는 經濟學研究에서 출발하였고 ② 생산성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經濟學的研究는 社會學이나 社會心理學的研究에 비해 그 진보를 측정하기 쉬웠고 또한 연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전개나 체계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③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는 企業의 生産性向上이 國民經濟上 급선무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도 지적되고 있다(cf. [8] pp. 122-123).

따라서 그의 패러다임은 서독에서 企業民主化와 人間尊重思想이 진전됨으로써 人間中心的 觀點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危機를 맞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그가 人間勞動을 단순한 生産要素로 다룸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를 그의 構想에서는 捨象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음에 살펴보게 되듯이 하이넨(Heinen, E.)은 人間을 經營經濟의 중심에 두어 人間만을 출발점으로 하는 닛크릿슈의인 研究傾向을 正 측 테제(These)로 보고 生産性關係만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구텐베르크 패러다임을 反 측 안티테제(Antithese)로 대립시키고 경영경제학은 합 측 진테제(synthese)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여 意思決定指向的 經營經濟學을 주장하였는데(cf. [21] p. 208) 이는 바로 經濟學的 方法論에 입각하는 구텐베르크 패러다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째, 그는 沒價值的 내지 價値自由的인 理論主義的 傾向을 指向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最適化處方=合理性原理의 適用은 企業에 固有한 것이며 그것은 規範的인 것이 아니라 價値自由的인 것으로 파악하고 심지어는 企業의 定義에서 研究者의 行動規範까지 誘導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新規範主義의 입장에서부터 구텐베르크의 批判的 經驗主義의 方向까지도 否定하게끔 하는 형식의 批判을 받게 하였었다. 이는 곧 그 자신이 理論과 實踐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劃定을 하지 못하고 경영경제학적인 傳統성과 애매함을 그대로 남기고 있었기 때문인데(cf. [8] pp. 106-107) 그것은 곧 그가 독일의 경영경제학이 傳統적으로 가지고 있는 實踐規範性을 그의 思考體系상에서 완전히 斷切하지 못하였기 때

문이다. 왜냐하면 뵘에(Wöeh, G.)는 “구텐베르크體系는 과거와 완전히 斷切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方法論的 觀點에서는 리저(Rieger, W.)나 슈마렌바흐와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31] p.719)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구텐베르크의 연구구상은 처음으로 독일의 경영경제학상 패러다임으로서의 구실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경영경제학상의 최근의 제문제(마케팅, 組織과 管理, 企業方針(政策)과 企業計劃, 人事制度等)을 체계적으로 統合하여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특히 留意하여야 할 일은 이러한 領域이 獨語圈에서 보다 구텐베르크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앵그로색슨系의 나라들에서 더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27] p.160).

다시 말하자면 구텐베르크의 接近方法은 問題解決能力과 精密性에 있어서는 패러다임機能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나 統合能力과 普遍性에 관해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cf. ditto).

2. 울리히 패러다임

이는 시스템의 接近方法을 말하는데 울리히(Ulrich, H.)에 의해 獨語圈의 경영경제학에 도입되었다.

구텐베르크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經營經濟學的 問題設定은 근본적으로 「經濟的觀點」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울리히가 도입한 시스템의 接近方法은 이러한 限定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企業, 公企業(公共企業體)과 行政을 포함하는 生產的 社會시스템에 관한 모든 形成(Gestaltung) 및 管理의 문제를 연구하는 學際的 接近方法이기 때문이다. 시스템指向의 經營經濟學은 이제 純粹理論으로서가 아니라 工學과 比肩될 수 있는 현실의 問題設定에 대해 연구하는 應用企業管理論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實踐을 중시하기 때문에 (微視經濟學的인) 구텐베르크理論의 閉鎖性과 數學化를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保守的 批判者의 見解를 따르면 시스템의 接近方法을 따르는 經營經濟學은 理論이 없는 學際的인 集積狀態로 후퇴하는 것으로 비판되기도 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한다([27] pp. 160-161).

① 用語的 機能~시스템의 接近方法은 抽象的, 學際的인 概念體系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現實에 관한 實質的 先入觀이나 先驗的 假定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發見的 機能~이는 종래 看過되어왔던 측면이나 脈絡(context)의 발견(예: 환경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開放性)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重點(예: 統計的 側面에 대한 力學的 側面의 강조)을 강조하게끔 하여주는 構造모델을 제공한다.

③ 統合的 機能~이는 실로 여러가지 영향요인이나 변수들, 따라서 특히 心理學的, 社會學的, 經濟學的 그리고 技術論的 側面을 고려할 수 있게 하여준다.

특히 세번째의 기능에 의해 시스템의 接近方法은 경영경제학의 社會科學에의 統合을 촉진한다. 그것은 종래의 경영경제학이 그 形式的 性格 때문에 스스로 社會科學의 研究成果를 생성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그와 같은 成果를 경영경제학에 체계적으로 끼워넣는 데에는 틀림없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學際的 開放性은 특히 經營管理論과 組織論 그리고 점점 더 行動科學에 의해 그 基礎가 다져지고 있는 마케팅論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接近方法이 그 學際的 開放性 및 統合的 機能과 아울러 패러다임의 地位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問題解決能力과 精密性을 나타낼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判定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行動科學으로 볼 때 보다 내용이 풍부한 意思決定論的 接近方法과의 統合에 의해 성공을 거두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다([27] pp. 161-162).

3. 하이넨 패러다임

시스템의 接近方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특히 하이넨에 의해 意思決定指向的 經營經濟學이 構想되었다. 그런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앞서의 시스템의 接近方法과 비슷하다(cf. [27] p. 162).

- ① 경영경제학을 應用的 또한 學際的 社會科學으로서 이해한다.
- ② 問題指向的인 방식으로 經營經濟的 行爲의 現實的 前提 및 조건을 고려하려고 한다.
- ③ 行爲目標와 形成目標에 강하게 焦點을 맞추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이러한 理論的 目標設定과 實踐的 目標設定과의 結合 때문에 시스템의 接近方法보다 더 우수한데 그 까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cf. ditto).

① 意思決定論的 機能~意思決定指向的 經營經濟學은 實踐規範의이다. 즉 그것은 그 문제를 意思決定過程의 論理的 範疇에서 定式化한다. 이 때문에 그것은 특히 實踐의 問題에 照準을 맞추고 있다.

② 行動科學的 基礎設定機能~경영경제학이 現實的 問題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現實的 前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記述的 經營經濟學으로서 맨먼저 經營經濟에 있어서의 실제의 意思決定行爲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形成課題와 아울러 行動科學의 說明課題도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意思決定論的 經營經濟學은 다른 어떤 접근방법보다 더 잘 說明課題와 形成課題의 構想上의 統合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종래의 제 접근방법은 그 構成面에서 분명히 다

만 限定的으로 밖에는 量化할 수 없는 行動科學的인 調整을 意思決定모델에 一貫하여 포함 시키는데에는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說明과 形成課題 사이에는 空白이 있었다. 意思決定모델에서도 구텐베르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利潤極大化라는 유일의 목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定性的인 성격을 가지는 다른 目標 또는 協同者나 소비자 및 사회전체에 대한 副次的인 影響등은 거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近年에 이르러 意思決定指向的인 經營經濟學에 대한 批判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곧 현대적인 형태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應用的인 脈絡에서 제기되고 있다([27] pp. 162-163).

울리히와 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세가지 접근방법의 패러다임성을 논한 다음 다음과 같이 結論짓고 있다([27] p. 163).

“경영경제학은 구텐베르그의 構想에 있다고 믿어지고 있는 古典的인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시작한 단계에 와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候補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科學的으로 기초가 주어짐과 동시에 實踐에도 합치한다는 經營經濟學的인 構想에 대해 이루어지는 모든 要求를 충족할 수 있는 포괄적인 새로운 基礎모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接近方法의 多元論이 優勢하다.”

이와 같은 결론은 바로 經營經濟學상으로 패러다임의 交替가 이루어지려는 단계에 이르는 하였으나 아직껏 완벽한 새로운 패러다임 즉 支配的인 理論은 생기지 못하고 前패러다임의인 接近方法의 多元論이 지배적임을 示唆하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經營管理學의 경우에도 바아나드와 사이몬으로 이어지는 理論이 經營(管理)理論의 패러다임을 형성했다고 지적되고 있다([3] p. 79).

經營組織論과 관련이 있는 組織論上的인 패러다임으로는 抽象的인 수준에 따른 패러다임의 階層性(paradigm hierarchy)을 반영하여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一般패러다임으로부터 中範圍패러다임에 이르는 14가지의 類型이 있다고 제시되고 있으며 마아케팅論상의 基本패러다임의 類型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位, 시스템 및 雙對(dyadic)의 세 가지로 나뉘어 고찰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 經營學상으로도 패러다임의 개념이 도입·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理解는 바로 어떤 對象을 選擇·識別하여 인식하는 觀點을 반영하는 接近方法과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 組織論상의 패러다임

패러다임	一般패러다임 主張者	中範圍패러다임主張者	分析水準	基 幹 概 念
行爲	Weber	Silverman, Bowey	個 人	意味있는 行爲, 狀況의 定義, 解釋役割 (interpretative role), 行動的 構造 (behavioral structure), 象徵的 相互作用
機能主義	Parsons	Merton, Etzioni, Gouldner, Blau, Selznick	組 織	均衡, 動的適應, 統合, 緊張處理, 政治的 吸收 (cooptation)
開 放 시 스템	Bertalanffy	Miller, Rice, Burns = Stalker, Croizier, Thompson, Lawrence = Lorsch, Duncan	組 織	多樣性, 不確實性, 適應, 均衡經路, 異因同果性 (equifinality), 피드백境界
期 待	Lewin Tolman	Vroom, Porter = Lawler Evans, Houce	個 人	誘意性, 手段性, 期待, 目標-經路 (path-goal)
人間關係	Mayo	Roethlisberger, Whyte, Homans, Likert	個 人	人間關係, 情感, 非公式組織, 支持的 關係, 連結된
欲 求	Maslow Murray	McGregor, Argyris, Herzberg, McClelland Cummin, Litwin = Stringer	個 人	欲求階層, 自己實現, Y理論, 衛生要因, 動機誘發要因, 達成(成就)欲求, 權力 (power) 欲求
影 響	Lewin	Cartwright = Zander Bales, French = Raven Ohio州立대그룹, Tannenbaum	集 團	相互作用, 集團力學, 리더십, 權力基盤 (power base), 配慮, 構造設定, 統制
交 換	Homans, Blau	Whyte, Jacobs	雙 方 (dyad)	相互報酬, 配分的正義 (distributive justice), 權力 (power) 依存
依 存	Blau, Emerson Merton	Pfeffer = Salancik Hickson et. al	個 人 團 體 組 織	權力 (power) 依存, 役割集合, 資源依存, 組織間關係, 境界連結 (boundary spanning)
葛 藤 (conflict)	Marx, Simmel, von Neumann = Morgenstern	Dalton, Walton = Mckersie Blake = Mouton, Pondy Coser, Dahrendorf.	個 人 團 體 組 織	辨證法的葛藤, 機能的葛藤, 게임, 問題解決, 問題直視 (confrontation), 配分的 交涉, 統合的 交涉, 에피소드 (episode)
情報處理	Simon March = Simon	Cyert = March Lawrence = Lorsch Galbraith, Duncan	個 人 團 體 組 織	認知限界, 滿足原理, 葛藤의 準解消, 不確實性吸收, 情報負荷
古 典 的 管 理 論	Fayol, Taylor	Mooney = Reily, Gulick Urwick, Brown, Koontz = O'Donnel	組 織	分業, 管理範圍, 命令系統, 命令의 統一, 權限, 라인, 스템
官 僚 制	Weber	Udy, Hall, 에스턴 그룹	組 織	合理性, 公式化, 複雜性, 集權化, 形態特性, 分化, 階層性
技 術	Marx, Veblen	Rice = Trist, Woodward, Thompson, Perrow, Harvey	組 織	社會技術시스템, 技術擴散性, (technical diffuseness), 課業複雜性

注: =선의 위쪽에 있는 3패러다임은 階層性이 높은 다시 말하면 汎用性이 있는 패러다임을 나타낸
資料: [10] pp. 266-267

〈表 3〉마케팅論상의 基本패러다임

특 색	單位패러다임	시스템 패러다임	雙對的 패러다임
구조	學習모델	一般 시스템 理論	社會 모델
	S→O→R	構造機能主義	A↔B
主要過程	外生的 影響	外生的 영향(制約) 投入, 產出, 피드백	互酬의 영향, 相互問題解決
說明메커니즘	刺激—反應	機能的要件 適應, 目標達成, 統合, 패턴維持	相互依存性
典型的 모델 내지 準 모델	웨드의 組織購買 모델, 태도 및 多屬性 모델, 情報處理 모델	레이저의 마케팅 시스템, 코틀러의 公衆 및 巨視環境	암에트의 現實의 互酬性, 바고지의 交換 모델, 에만의 멧칭어프로치(matching approach), 설렐—페닝튼의 相互作用過程 分析
典型的 研究焦點	反應性, 閉鎖시스템, 豫測, 統制	대규모시스템, 開放시스템, 投入, 產出, 恒常性(homeostasis)과 균형, 均衡經路, 다양성, 조직체와 환경, 記述과 分類	社會的 交換, 權力, 影響關係 協商과 交涉, 葛藤, 協調, 競争, 기타의 사회적관계, 설명과 이해
典型的인 단점	還元的, 機械的, 마케팅의 社會的 特性的 무시, 靜的焦點, 제품, 행위 등의 媒介行動에 있어서의 의미의 무시(예: 象徴을 통한), 目標指向行動의 설명의 실패	현재의 밀립상태하에서는 記述의 시스템 過程은 特定化되지 않고 未知내지 決定不能이다. 現狀에서는 檢證不能, 많은 實證研究가 나오지 않음.	많은 접근방법은 고객—판매원 狀況에만 적용됨. 대다수의 모델은 社會的 過程의 한정된 現象만을 나타내고 있음.

(資料: [15][10] p.269).

V. 結 言

이상 살펴 본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어떠한 學問(科學 또는 分科學)分野에도 學說 내지 理論의 多樣化가 이루어져 여러 學派의 分岐化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認識의 多元化 즉 差別化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그 학문이 正體危機를 맞게끔하는 事態를 빚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어떤 특정학문상의 學說의 多樣化 내지 學派의 多岐化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 원인을 探索하고자 하는 것이 本稿의 意圖이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理論 내지 學說의 多樣化와 이에 따르는 學派의 多岐의 分化의 바탕은 分科學 내지 個別科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方法論의 基礎로 삼

아 依據하고 있는 科學理論 내지 科學哲學의 方法論的 基礎 즉 認識論的 基礎의 차이에 있다고 보아 먼저 科學理論 내지 科學哲學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보고 이러한 科學理論 내지 科學哲學상의 대표적인 오늘날의 두가지의 認識方法論 즉 批判的 合理主義와 構成主義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두가지의 方法論的 基礎는 바로 쿤이 말한바, 패러다임의인 성격을 가지는 科學理論상의 接近方法 내지 觀點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經營學을 포함하는 個別科學 내지 分科學의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특정의 分科學 내지 個別科學상의 學說내지 學派의 對立은 그것이 依據하고 있고 이에 패러다임을 설정하게끔 하여주는 科學理論상의 패러다임의 차이에 있다고 보아 패러다임의 意義와 本質 및 그 機能을 살펴보았다.

쿤의 패러다임概念은 흔히 研究構想내지 研究프로그램으로도 불리워지듯이 특정의 대상에 대한 研究를 위한 중심적인 基本모델로서 특정의 시점에서 다른 여러 前패러다임學派의 학자들을 魅惑시킬 수 있는 새로운 綜合을 제시한 支配的 理論인데 이의 형성은 科學的 進歩를 가져다 주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바로 準理論的인 信念의 集合으로서 특정의 학자나 학파의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暗默的인 信念의 實體인데 이는 굴드너의 背後假定(領域假定포함)이나, 혹은 흔히 말하는 바 理論前提, 接近方法, 觀點 또는 研究指向性등과도 一脈相通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個別科學상으로는 대상을 選別·認識하는 기초가 되는 特定の 觀點을 반영하는 方法으로 指稱되고 있다.

따라서 學說이나 學派의 分岐化는 결국 學說내지 理論을 構築하는 학자들의 方法論的 差異 즉 패러다임의 차이에 연유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經營學상의 패러다임의 形成可能性을 살펴 보았다. 먼저 독일의 經營경제학과 관련하여 울리히와 힐의 所論을 따라 구텐베르그의 要素結合的 패러다임, 울리히에 의해 도입·전개된 시스템의 패러다임 및 하이넨에 의해 전개되는 意思決定指向的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미국의 經營관리학과 관련하여서는 組織論상의 패러다임 및 마케팅論상의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그 결과 經營學상으로도 당연히 패러다임概念이 점차 인식, 도입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여러모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으며 이것이 各分科學의 理論 내지 學說의 多樣化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특정의 分科學 내지 個別科學에 있어서의 理論 내지 學說의 多樣化나 이에 따른 學派의 多岐化로 인한 특정의 分科學 내지 個別科學의 正體危機는 어떻게 극복되어야만

할 것인가?

사이몬流의 知的 分業의 多樣化를 학문발전의 象徴으로 보는 樂觀主義의 見解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인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저마다 다른 知識 體系가 형성된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그와 같은 지식체계가 未來의 豫測과 目標達成을 위해 그것을 制御하기 위한 實踐的 目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西歐의 學問을 지배하고 있는 思想的 基盤은 認識論상의 두가지 패러다임중 認識主體의 對象構成作用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재체란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 없는 混沌된 것으로 보아 인식대상보다 접근방법(고찰방법)의 優位性을 주장하는 主觀主義(cf. [5] p. 2 및 p. 7) 중에서 대표적인 新칸트派의인 認識論理와 데카르트(Decartes, R.)의 分析論理에 의존하여 왔다.

이러한 主觀主義에 속하는 主知主義의인 新칸트派의 認識論理는 經驗的·觀念論의 입장에서는 것으로서 이는 方法論的 觀點이 인식대상을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學問은 대상이 아니라 方法論的 觀點 즉 패러다임이 학문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는 方法優位論을 내세운다. 그러므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따르는 한 동일한 하나의 存在實體인 經驗對象에 대해 저마다의 패러다임 즉 觀點의 차이에 따른 저마다 다른 思考對象으로서의 認識對象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知識體系를 理論내지 과학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저마다 다른 理論이 성립되어 理論 내지 學說의 多樣化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學派의 多岐化가 필연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主觀主義的 認識論理를 따르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科學理論상의 패러다임의 多樣性은 있기 마련이며 이것이 經營學과 같은 個別科學 내지 分科學의 패러다임의 多樣化를 가져다주어 學說이나 理論의 多樣化에 의한 學派의 多岐化를 초래할 것은 당연하며 그것이 個別科學 내지 分科學의 正體危機를 가져다 줄 것은 당연하다.

사실상 對象의 分斷化를 전제로 하는 新칸트派의인 認識論理나 分析論理가 지배적인 한 各分科學間의 專門化와 閉塞化가 촉진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cf. [5] p. 389) 경영학상으로도 이러한 歸結은 당연히 생기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財務의 觀點(=측면)에서 연구가 시작되건, 마케팅의 觀點(=측면)에서 시작되건, 生産의 觀點(=측면)에서 또한 人事, 事務 또는 組織의 觀點(=측면)에서 연구가 시작되건 그것은 그 측면의 연구에 그치지 않고 결국은 근본적인 企業 그 자체의 연구에 이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經營學은 經營者의 行爲實踐에 대한 綜合的 知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研究分業論 내지 學問分業論이 지나쳐 이의 統合化를 위한 協同論을 잊고 있는 것이다”(cf. [13] p. 40)라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특정의 分科學 자체내의 部分理論의 綜合化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社會科學내에서의 각 分科學 내지 個別科學의 統合化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要求는 현실적으로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cf. [23] p. 2).

그러려면 특정의 個別科學 내지 分科學의 패러다임을 규정지워주는 科學理論상의 認識論的 基礎 내지 方法論的 基礎인 패러다임의 變革 내지 革命(paradigm revolution)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드러커(Drucker, P.F.)는 일찍이 과거 50여년간에 걸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상으로 형성된 새로운 개념들, 예컨대 免役, 新陳代謝, 生態學(ecology), 定(恒)常性(homeostasis), 動的平衡, 樣式, 構成(configuration: Gestalt), 自我, 個性(personality), 行動, 文化, 自動化(automation), 經營管理(management), 國民所得, 生産性, 經濟成長, 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발전을 回顧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cf. [16] [13] p. 86 및 p. 331).

이러한 발전은 「原因에서 結果」가 아닌 「原因에서 形態」(構成: configuration)로의, 양적인 것으로부터 질적인 것으로의 발전이며 이 중 어떠한 개념이건 그것은 「全體는 部分의 合」이라는 데카르트의 分析論理에 따른 公理에 합치하지 않으며 반대로 「部分은 全體의 考察속에 있다」고 하는 새로운나 아직 公理化되지 않은 命題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개념들은 分析論理로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目的이 있는 企業을 다루는 經營學의 경우 그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드러키는 새로운 理念내지 思想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그는 불과 10~20년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統合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오늘날엔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16][13] p. 87).

첫째,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지 않을 것인지 豫見할 수 있는데, 그것은 데카르트의 世界觀을 거부한다기보다 그것을 超克하여 包括하는 것이다.

둘째, 物質의 세계와 마음(觀念)의 세계를 구별하는 데카르트의 二元論은 새로운 統合에서 지속될 수 없다. 唯物論과 唯心論은 과거 300년 동안 그 거리가 벌어져 왔으나 精神(마음)과 物質은 양자의 보다 큰 統一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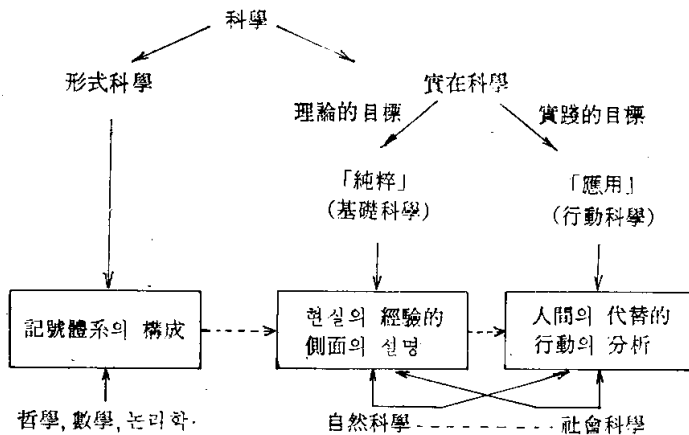
셋째, 새로운 統合은 시스템이건 有機體이건 狀況이건, 그것은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에 特殊的인 實在로서의 全體의 개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영학은 발전·성장·쇠퇴와 같은 質的이며 非可逆的인 변화를 다룰 수 있는 嚴密科學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方法이 필요하다. 그것은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방향이나 미래의 動向에 의해, 確率計算이 아니라 可能性의 계산에 의해 어떤 일이나 現在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目的의 理念, 質의 論理, 質的 變化의 측정방법, 가능성과 기회的方法論, 轉換點과 危機的 要因의 방법論, 위험과 불확실성의 방법論, 定常性과 타이밍의 方法論, 비약과 연속의 方法論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는 곧 對立物의 辯證法(a dialectic of polarity)을 필요로 한다" ([16][13] p. 87)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드러커의 論理는 分析論理를 초극하는 綜合的 論理이며 客體의 論理가 아닌 行爲的 直觀의 立場에서 主體의 論理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3] p. 332).

사실상 經營學이 行爲實踐者인 經營者에게 도움이 되는 應用科學으로서의 制御理論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이는 그 성격상 企業全體를 대상으로 綜合的인 實踐理論科學이 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實證性이 높은 說明力과 豫測力을 아울러 가지는 基礎科學의 研究가 충실화되고 양자가 <圖 3>의 科學體系에 相應하는 質의 內容을 갖추려면 패러다임의 變革을 위한 方法論的 模索이 이루어질 必要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經驗的 實在로서의 企業에 대한 實證的인 說明과 이의 目的의 達成을 위한 目的達成度도 높고 手段節約度도 높은, 즉 效率的(effective and efficient)인 代替的 行動實踐案을 構想, 提案할 수 있어야만 實在科學으로서의 經營學이 學問進步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主觀的인

<圖 3> 科學體系



([27] p. 153).

로 知覺된 현실의 특정 側面을 諸概念을 사용하여 間主觀的으로 傳達 가능하게끔 엄밀하게 記述함으로써 說明하고 個個의 事例를 普遍化시키는 抽象化를 통해 一般化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代替的인 企業行動의 規範 내지 指針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企業行動을 制御 하는데 도움이 되는 知識體系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拙著, 經營學史, 1985.
- [2] 拙稿, 「經營學과 價値 및 思想—經營學思想史的 接近을 위한 試論的 探索」, 서울大學 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經營論集, 19卷 1號, 1985. 3.
- [3] 金海天, 經營學原論, 1985.
- [4] 拙著, 經營學原論, 1984.
- [5] ——, 理論經營學, 1983.
- [6] 市原季一, 經營學論考, 1975.
- [7] 加藤正見, 價値の研究, 1971.
- [8] 北野利信編, ドイツ經營學入門, 1980.
- [9] 酒井正三郎, 經營學方法論, 1966.
- [10] 南山大學經濟經營學會編, 經營學 guidebook, 1979.
- [11] 藪富吉, 日本經營思想史, 戰時體制期の 經營學, 1983.
- [12] 村上陽一部, 近代科學을 超えて, 1974.
- [13] 山本安次郎, 經營學研究方法論, 1975.
- [14] Ackermann, K.F., Arbeitsnehmerinteressen in der Betriebswirtschaftlichen Theorie: Analyse der Arbeitsorientierten Einzelwirtschaftslehre, 1974.
- [15] Bagozzi, R.P., T.V. Bonoma. & G. Zaltman, "The Dyadic Paradigm in Marketing Thought," in T.V. Bonoma & G. Zaltman., eds, Organizational Buying Behavior, 1978.
- [16] Drucker, P.F., "The New Philosophy Comes to Life," Harper, Aug. 1957.
- [17] Fischer, G. Allgemeine Betriebswirtschaftslehre, 8 Aufl. 1957(同日譯書).
- [18] Gouldner, A.W., The Coming Crisis of Western Sociology, Basic Books, 1970.
- [19] Gutenberg, E., Grundlagen der Betriebswirtschaftslehre, BD. 1. Die Produktion, 1

Aufl., 1951.

- [20] Hage, J., Techniques and Problem of Theory Construction in Sociology, 1972(同日譯書).
- [21] Heinen, E., "Zum Wissenschafts Programm der entscheidungsorientierten Betriebswirtschaftslehre," ZfB, 39 Jharg, Heft 4, 1969.
- [22] Jehle, E., Über Fortschritt und Fortschrittkriterien in Betriebswirtschaftlichen Theorien, Eine Erkenntnis und Methodenkritische Bestandsaufnahme betriebswirtschaftlicher Forschungs Programme, 1973.
- [23] Kapp, W., Integration and Humanization of the Social Sciences, 1977. (同日譯書)
- [24] Koontz, H., C. O'Donnel & H. Wehrich, Management, 8th ed., 1984.
- [25]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in Neurath O. et. al. eds., The Unity of Knowledge, 1955.
- [26] Lakatos, I. & A.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1970.
- [27] Raffée, H. und B. Abel, Wissenschafts theoretische Grundfragen der Wirtschaftswissenschaften, 1979(同日譯書).
- [28] Schönpflug, F., Betriebswirtschaftslehre, Methoden und Hauptströmungen, 1954 (同日譯書).
- [29] —., Methodenproblem in der Einzelwirtschaftslehre, Eine dogmenkritische Untersuchung, 1933.
- [30] Walters, G., Consumer Behavior, Theory and Practices, rev. ed., 1974.
- [31] Wöeh, G., Einführung in die Allgemeine Betriebswirtschaftslehre, 11 Aufl., 1973.